



스포츠 정신으로 모험영역 확대하는

## 멀티 플레이어 리더



### 북한에 책 8만 권 기증, 북한과 합작 번역사업 추진하는 영진닷컴 한상진 사장

출판계에서 만능 스포츠맨으로 통하는 영진닷컴 한상진 사장은 승부를 좋아하는 모험가형 사업가다. 골프를 칠 때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늘 내기를 제안하는 한 사장은 신나게 돌아보자는 생각 반, 이왕 하는 게임이니 화끈하게 겨뤄보자는 생각 반으로 매사에 임한다. 이 모험가적 기질은 출판경영에도 반영되는데 덕분에 영진닷컴 직원들은 늘 한 사장을 따라 모험에 빠져들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북

한에 책 8만 권을 기증하는 사업과 남북공동 번역사업까지 업무가 추가돼 직원들은 더 숨가쁘게 달릴 채비를 하는 상태다.

“5년 전부터 국내 출판물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수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외국 양서를 들여오는 데 이견은 없지만 국내 도서 수출을 독려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것을 수출하고, 외국 도서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일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는 수입에만 의

존하잖습니까. 영진닷컴이 이라나 북한 시장에 접근한 것도 이 세계를 해외 수출시장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해외시장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접근한 북한은 시장가치도 있었지만 그보다 장학사업이 선행돼야 할 곳이었다. 여기서 장학사업이란 영진닷컴의 도서를 외부에 기증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그동안에는 소년원, 연변 조선족 등 주로 소외계층이 책을 기증받았다.

“대단한 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진행하던 지원사업의 연장이고 대상이 변했을 뿐입니다. IT분야는 시류를 타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여기에서는 수요가 없는 도서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북한분들께는 최신 정보이니 큰 도움이 되지요.”

다행히 통일부의 도서반출승인도 어렵지 않게 받아냈다. 사상을 담은 책이 아니다 보니 통일부에서도 별다른 문제제기는 하지 않은 것이다.

“지원으로 시작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언어적인 통일 등 문화적인 교류를 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5일 1차 방북을 하면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거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었지요.”

특히 이번 지원사업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논의가 이뤄졌다는 데서 관심을 끈다. 한 사장은 북한의 조선북권합영회사의 운영자를 매개로 북한과 공동사업 추진의사를 밝히고 교류협력 파트너 물색, 방북초청 전달 등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북권합영회사의 남한측 참여자인 훈넷이 대북교류 의사를 북측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톡톡하게 해줬다.

“훈넷은 북한에서 운영하고 한국에서 사이트 수익모델을 가져가는 북권 사이트입니다. 북한과 교류하는데 이 사이트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간교류인데 돈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것도 이번 사업의 화젯거리입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서 북한에도 고급 IT인력이 있다는 걸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한 사장은 기증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하나의 사업거리를 건져왔다. 북한과 접촉하면서 그곳에 번역인구가 많다는 걸 실감한 후 국민대학습당에 소속된 2만 명의 고급 인력에게 번역을 의뢰하게 된 것. 결국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일어 4개 분야에 능통한 고급인력들은 영진닷컴이 출간을 준비하는 책(페이지로 치면 약 100만 페이지)

를 번역할 예정이다.

“북측에 주는 인건비가 여기와 비교하면 10분의 1입니다. 여기서 만 원이면 거기서는 천 원도 안 되는 가격이지요. 우리 측에서는 북한의 고급 인력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번역을 의뢰하고 북측에서는 일거리를 제공받는다든 점에서 쌍방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증과 번역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인민대학습당은 남한의 국립도서관 개념의 도서관으로 3,000만 권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1년에 2,000만 명을 교육하는 교육시스템까지 갖춘 특별한 도서관. 특히 도서관 기능과 학원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어 사설학원이 없는 북한에서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이곳을 권장하고 있다.

“600개의 강의실이 있으며 영어, 미술, 음악, 컴퓨터 등을 재교육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더군요. 방북 때 둘러봤는데 도서관 기능과 학습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문답실’이라고 책을 읽다가 모르는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게 인민대학습당의 전반적인 컨셉을 보여준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보낼 책 8만 권도 여기 기증될 예정인데 현재 계획으로는 4월 중에 1차분 1만 권을 보내고 나머지 도서들도 1만 권씩 꾸준히 보낼 계획입니다.”

북한에도 개인 출판사는 많지만 대부분의 책이 정부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출간되므로 고유색을 가진 전문 출판사는 전무한 상태다. 특히 민간 차원의 자유경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가 제 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나마 도서관이 독자들에게 다양한 책을 소개,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IT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를 교육 시키는 데는 당원을 따지기 마련인데 IT분야는 누구에게나 교육을 시킵니다. 종합교육 특별반까지 마련한 걸 보면 이 분야에 대한 인력

투자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기증과 번역사업까지만 하고 있지만 제가 북한과 해보고 싶은 사업은 공동출판입니다. 번역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공동출판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지요. 정치나 이념은 제외하고 같은 민족끼리 출판을 통해 문화적인 교류를 했으면 합니다. 방송에서 한 시간 소개하는 것은 곁팔기식이 되기 쉽지만 책을 통해 문화를 소개하는 것은 그보다 몇 배 더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하지요.”

출판계가 불황이라고 하지만 영진닷컴은 인터넷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엔 연일 이름을 올리며 약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약진 뒤에는 “경기 타격을 전혀 안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환경 탓만 하는 것도 문제”라는 한 사장의 경영 마인드가 큰 디딤돌로 놓여 있다. 누구나 똑같이 어렵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게 한 사장의 뜻이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잡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BOOK&LIFE>라고 자사책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건강, 요리, 교육, 영화 등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정보까지 함께 제공하는 무가지 잡지이죠. 외부 광고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광고 지면을 만들어보자는 생각했지요. 출판사들도 스스로 매개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5만 부를 찍는데 십만 부 이상 낼 때까지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한 사장은 직원들이 힘들어하지 않겠다는 말에 “우리 회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답한다. 또 영진닷컴에서 일하려면 책도 잘 만들어야 하지만 때로는 서점에 나가 “책사세요” 소리치며 판매도 할 줄 아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자신 역시 진정한 멀티플레이어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며 또 다른 모험거리를 찾으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주**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